“인생 2막에 작은 보탬이라도”…기술로 나누는 희망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최용석 911배관닥터홈 대표 재능기부
고액 교육비 부담에 기술 나눔 결심
퇴직 앞둔 중·장년 10여명 한자리에
배관 청소 노하우 전하며 재도전 응원


지난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911배관닥터홈 사무실에서 최용석 대표가 퇴직을 앞두거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수도·보일러 배관 청소 기술을 무료로 전수하고 있다. /이연상 기자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911배관닥터홈 사무실. 퇴직을 앞두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층 10여명이 수도·보일러 배관 청소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에서 무료 교육 소식을 접한 참가자들로, 7년간 배관 청소 업에 종사한 최용석(58) 911배관닥터홈 대표가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탁자 위에는 몽키스패너와 드라이버, 배관 연결 부속품이 가지런히 놓였고 주변에는 크고 작은 배관 청소 장비가 줄지어 있었다.

최 대표가 작은 배관 부속품을 들어 올려 사용법을 설명하자 참석자들은 자료와 장비를 번갈아 살펴보며 귀를 기울였다.

이어 최 대표는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 배관에 장비를 연결하는 방식, 청소 작업에 걸리는 시간과 현장에서 주의할 점 등을 차근차근 소개했다.

이번 나눔은 기술을 배우는 데 드는 높은 비용에 대한 최 대표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7년 전 서울에서 기술을 배워 고향인 전남광주에서 사업을 시작한 그는 교육비와 장비 구입비를 포함해 1천만원이 훌쩍 넘는 창업 교육이 새 출발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봤다.

이에 교육비를 받지 않고 기술을 전수하며,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에 참여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는 게 최 대표의 설명이다.

교육에 참여한 김범준(58)씨는 “당근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 교육 소식을 접했다”며 “퇴직을 앞두고 노후에도 쓸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싶었고, 처음에는 걱정도 됐지만 장비 사용법을 익히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최근 퇴직한 배정현(57·여)씨도 “재취업하기 어중간한 나이라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다”며 “집에서 수도꼭지를 교체하는 것과 돈을 받고 남의 집에서 작업하는 것은 다른 만큼 현장에서 더 배워보고 싶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앞으로 희망자들의 적성에 따라 시공과 영업 분야로 나눠 현장실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실제로 기술을 배우고 창업하려는 분들은 아파트와 기숙사 등 작업 현장에서 장비 사용법과 시공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영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관공서와 학교,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방법을 알려줄 예정”이라며 “각자의 역량에 맞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이 일을 배울 때 저 역시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서울까지 찾아가야 했다”며 “이제는 제가 쌓아온 기술을 지역사회에 돌려주고 싶다. 새로운 시작이 절실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연상 기자



담양축협, 4년째 고향사랑기부 동참

담양축협이 고향사랑기부제에 4년 연속 동참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5일 담양군에 따르면 전날 담양축협 임직원 43명이 뜻을 모아 총 45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성금은 지역 발전을 응원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미를 더했다.

담양축협은 4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기탁금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고향사랑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을성 담양축협 조합장은 “임직원들의 정성이 군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구례군-전남여성가족재단, 폭력 예방 업무협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5일 “전날 전남여성가족재단과 폭력 예방·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장길선 구례군수,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정미남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군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가정 폭력은 물론, 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한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기관과 함께 폭력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전남대 석유화학소재공학과, ‘미래 일경험’ 최우수상

전남대학교 석유화학소재공학과 재학생들이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5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사)전남여수산학융합원 주관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에 총 43개 팀이 경합한 결과, 석유화학소재공학과 재학생 팀 1·2기 모두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김유민·도윤·정성훈·하승준 학생으로 구성된 1기 ‘여수사랑팀’은 ㈜신정개발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경제적 고효율 방염 소재 합성·기능성 코팅 공정 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박용하·이경훈·박태원·황준경 학생으로 구성된 2기 ‘ASTM팀’은 ㈜신정개발과 함께 ‘미활용 탄소원 활용 지속가능연료 생산 공정 개발·실증 가능성 평가’ 과제를 수행했다.

최원호 석유화학소재공학과 학과장은 “여수국가산단 산업 체계와 연계된 실무 중심 엔지니어링 교육을 강화해 맞춤형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나주 남평읍지사협, 취약계층 이불 세탁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일 “오는 12월까지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70세대를 대상으로 ‘포근포근 이불세탁 건강지킴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신체적 제약으로 대형 이불 빨래가 힘든 이웃들의 주거 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지사협 위원들이 가구를 방문해 이불을 수거한 뒤 세탁업체에서 세탁과 건조를 마쳐 다시 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원들은 방문 과정에서 대상자의 안부와 생활 실태를 살피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하고 있다.



구동주 남평읍지사협 민간위원장은 “무거운 이불 세탁에 애를 먹는 이웃들에게 쾌적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 뜻깊다”며 “주민 피부에 와닿는 밀착형 복지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여수교육청, 학생·학부모와 함께 ‘안중근’ 공연 관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교육지원청은 5일 “지난 3일 여수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관내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으로 안중근 의사 음악연가 ‘하얼빈의 열 하루’ 공연을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연은 학생들이 교과서 속 역사적 인물을 예술적 관점에서 만나고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독립운동 정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하얼빈의 열 하루’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거사의 순간뿐 아니라 하얼빈에서 보낸 열 하루간의 발자취와 여순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한 과정, 그 길을 함께한 동지들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연가다.



김영신 여수교육장은 “역사는 오늘의 삶과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배움의 자산”이라며 “안중근 의사의 독립정신과 동양 평화의 뜻을 되새기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주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김광대 목포 유달산맥 대표, 장수사진 재능기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는 5일 “최근 김광대 유달산맥 대표가 목원동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능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드리기 위해 추진됐다.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물하고 이웃 간 정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김광대 유달산맥 대표는 “어르신들이 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와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트로트 가수 김다현, 화순군 홍보대사 위촉

트로트 가수 김다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임지락 화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트로트 가수 김다현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다.

임지락 화순군수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다현 가수를 홍보대사로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밝고 건강한 에너지로 화순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문화를 전국에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김경훈 조대병원 전공의, 조혈모세포 기증

조선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경훈 전공의가 최근 일면식 없는 혈액질환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며 따뜻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환자와 기증자 간의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해야 가능하며, 비혈연 간 일치 확률은 수만 분의 일에 불과해 ‘기적의 나눔’으로 불린다.

김경훈 전공의는 의사를 꿈꾸던 대학생 시절인 지난 2012년, 평소처럼 헌혈에 참여하던 중 우연히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등록 부스를 접하게 됐다. 당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기증 희망 등록을 마쳤다.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지난 4월께 김 전공의는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투병 중인 환자와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한다는 연락을 받고 흔쾌히 기증에 동의했다.

김경훈 전공의는 “의사가 돼 여러 환자를 마주하며 한 사람의 질병이 환자 본인뿐 아니라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알게 됐기에, 의료 현장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살리는 데 직접 힘을 보탤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채만 기자



조두환 오토컨설턴트, ‘그랜드 마스터’ 등극

기아는 전남광주 서광주지점 조두환 선임 오토컨설턴트가 누계 판매 대수 4천대를 달성해 ‘그랜드 마스터(Grand Master)’에 올랐다고 5일 밝혔다.

그랜드 마스터는 기아에서 누계 판매 4천대를 달성한 오토컨설턴트에게 주어지는 영예다.

조두환 선임 오토컨설턴트는 1994년 입사 후 32년간 연평균 125대를 판매하며 누계 판매 4천대를 달성해 42번째 그랜드 마스터의 영예를 안았다. 기아는 조두환 선임 오토컨설턴트에게 상패와 포상 차량을 수여했다. /박선옥 기자

부음

▲박경한(향년 93세)씨 별세, 박균섭·균철·균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부친상, 최정희·고지연·이병희씨 시부상, 박창용·전용·민용·소영·승민·주영·해강·정훈씨 조부상 = 발인 6일 오전 9시 전남광주 빛장례식장 특1호실, 장지 함평 나산 선영.(062-452-4000)

▲서재홍(조선대학교 전 총장·향년 77세)씨 별세, 이봉희씨 남편상, 서성현·세은·자은씨 부친상, 정수윤·김우중씨 장인상=빈소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발인 6일 오전 8시30분, 장지 이천 에덱낙원(062-231-8902)